지상백고좌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모든 것은 허상… 집착 내려놓으면 如如하다”



정여 스님은… 벽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7월 15일 부산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6년 3월15일 부산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김천 수도암, 현풍 도성암, 하동 쌍계사 금당, 문경 봉암사, 백담사 무문관, 범어사 금어선원 등에서 안거했다. 범어사 주지, 부산불교연합회장 및 이사장을 지냈다. 대한불교교사대 학장,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범어 이사장,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이사장을 지냈다. 재단법인 보현장학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 대표를 맡고 있다. 1991년 조계종 총무원장 공로 표창패, 2000년에는 종정 표창패를 받았다. 2001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어 2005년 다촌문화상 공로상과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스님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과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등이 있다.

금정산(金井山)은 금빛 물고기가 내려와 산 정상의 샘(井)에서 놀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그리고 그곳에 건립된 사찰이 범어사(梵魚寺)다. 해동의 화엄십찰 중 하나로 창간된 범어사는 수많은 고승대덕들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한국의 명찰이며, 지금도 부산과 경남 일원의 수행·전법 도량이자 총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정총림을 새로 이끄는 선지식이 여산 정여 대종사다. 새해를 앞두고 정여 대종사를 찾아 뵙고 가르침을 받았다. 산중도 한파 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선지식의 푸른 안목 때문인지, 무애한 그림자 때문인지, 출세간의 하루는 그저 여여했다. 산문의 안과 밖은 그랬다.

금정총림, 변화된 안거

금정총림 범어사는 지난해 10월 26일 산중총회를 통해 원로의원 정여 스님을 방장 후보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그리고 11월 1일 조계종 중앙종회의 인준이 있었다.

정여 스님은 방장으로 추대된 후 총림을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고 있다. 정여 스님이 방장으로 추대된 후 금정총림은 처음 맞는 동안거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였다. 새벽 정진 시간을 3시에서 4시로 옮겼고, 삭발·목욕일을 한 달에 세 번에서 네 번으로 늘렸다. 그리고 1시간 정진 후의 10분 포행을 20분으로 늘렸다.

“정진 후 포행은 휴식과 각자의 용무를 보기 위한 시간인데 10분이라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포행은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또 다른 수행의 시간이기도 한데 10분이라는 시간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좌선으로 경직됐던 몸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어야 다시 좌복 위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변화에 대한 안거 대중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런 긍정의 변화는 스님이 오랫동안 출세간과 세간에서 수행과 전법을 통해 쌓은 공부와 그로 인한 내공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지나온 시절을 ‘지나간 시절’로 끝내지 않고, 오늘의 시절에 맞게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다.

상구보리(上求菩提)

정여 스님이 산문에 든 지 50여 년, 그 시간은 이제 ‘길’이라는 말로 바꿔 불러야 할 것 같다. 출가 수행자로서 정여 스님의 ‘길’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지극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의 ‘50년’을 정리하면 수행과 불사, 포교와 복지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산문과 산문 밖을 오가야 하는 지극한 불사였다.

월남전 참전했던 정여 스님은 제대 후 옛 전우의 권유로 출가했다. 범어사에서 벽파 스님을 은사로 불가의 이름을 받았다. 그리고 1975년 7월 15일 부산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1976년 3월 15일 부산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금정총림 방장 추대
소통과 화합으로 후학들 이끌어
대중들에 맞게 안거 문화도 변화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한 50년
출가 후 수도암 등서 치열한 정진
은사 부름에 8년 간 하심으로 불사
부산서 전법…‘포교 · 복지’ 이끌어

정여 스님이 들려준 남해 보리암 복골에서 정진한 일화는 상구보리를 위한 정진력을 알 수 있게 한다. 스님에 따르면 금산 자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옆을 막아 만든 토굴에서 결사를 했다. 끼니는 미숫가루, 화두는 조주 스님의 ‘무(無)’자였다. 스님은 손가락에서 피를 내어 ‘無’자를 여러 장 썼다. 그리고 그 ‘無’자를 천장과 벽에 붙여놓고 백일정진을 했다.

1978년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바랑 하나와 길을 나섰다. 수도암과 도성암에서 화두를 들었다. 수도암에서는 해인사 종정을 지낸 법전 스님을 모시고 1년 반 가량을 수행 정진했다.

그리고 스님은 1984년 여름에 범어사 금강암으로 돌아갔다. 은사스님의 부르심이었다. 불사가 있었다. 출가 수행자에게 ‘불사’란 그 이름이 무엇이든 한 가지이다. 도량을 일구는 것 역시 무거운 불사다. 스님에게 불사라는 이름 안에는 경중과 원근이 없었다. 스님은 금강암 불사만에 온 마음을 냈다. 그것 역시 ‘정진’이라고 생각했다.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수행이었다. 불사는 8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회향했다.

불사를 마친 스님은 다음날 곧바로 선원으로 향했다. 하동 쌍계사 금당선원. 스님은 입승 소임을 맡아 3년간 정진했다. 그리고 스님은 부산으로 돌아왔다. ‘무’자 끝에는 ‘회향’이라는 또 다른 화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의 공부가 스님을 산문 밖으로 불러냈다.

스님은 은사스님께 자신의 전법과 포교에 대한 원력을 고했다. 몸과 마음이 고단해서 절을 찾는 대중의 모습이 스님의 마음 한 가운데에 있었다. 스님은 생각했다. 그들은 고단한 이들이다. 고단한 이들을 어찌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하화중생, 그것은 결코 기다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다가가야 하는 일이었다. 스님에게 ‘공부’는 반드시 회향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스님은 수행자의 공부에는 많은 인연의 공덕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한철의 공부라도 그 끝에서 원력이 인다면 부처님 말씀에서 멀리 있는 대중을 위해 길을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화중생(下化衆生)

정여 스님은 1995년 부산 영정시장 한복판에 여여선원을 열고 대중과 함께한다. ‘도량’은 부처님을 모시고 대중을 맞는 곳이다. 대중이 도량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화중생은 시작되는 것이다. 스님의 진심어린 전법은 포교로 이어졌다. 석 달 만에 1400여 개의 인등이 법당을 밝혔다.

스님은 먼저 교리강좌를 열었다. 주간반, 야간반, 금강경반, 육조단경반 등을 통틀어 1500여 명이 등록을 마쳤다. 불도 부산에서도 흔한 일은 아니었다.

스님은 ‘계층포교’에 누구보다도 먼저 눈을 뜬 수행자였다. 철저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법회를 열었다.

13면에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